

# 한길로 영어 1달 1등급 비법서

10월 모의고사 3등급이 1달만에  
수능 1등급이 되기까지

# 들어가기에 앞서

필자는 9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10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을 받는 엄청난 하락곡선을 극복하고 2023 대수능에서 꽤나 안정적인 원점수 95로 1등급을 받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르칠 만한 실력을 학원 도움 없이 갖추게 된 것이 영어 밖에 없어서이다. 영어는 중3 학원, 고1 내신 영어 학원 이후로 다닌 적 없다. 즉 영어 모의고사 공부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

이번 비법서는 수능이 1달 남았는데 2,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1~2등급 왔다리 갔다리들의 인생 역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1달 동안 어떤 문제집, 단어장, 유튜브, 인강을 보아야 하는지 답았다.)

## 1. 필자의 수능 날 영어 느낌 (여기 나온 문제 풀이 순서를 따라해라)

수능 이브 부터 수능 아침, 점심까지 나는 전혀 전혀 떨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다. 수능 치러가는 수험생 맞냐고, 내가 유일하게 수능을 치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이 떨리는 걸 느낀 과목이 영어다. 영어는 수능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기에 수능 전에도 제일 중압감이 컸던 과목이었다. (최저가 걸렸다) 듣기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침빌런, 다리 떨이 빌런, 음향 문제를 모두 생각해놓고 갔다. 다행스럽게 해당 빌런들을 마주치지 않았고 듣기평가 음질은 좋았다. 듣기 평가는 음향 문제로 게시판에 이의 신고 들어올까봐인지 귀가 찢어지게 틀었다. 소리가 정말 너무 커서 오히려 집중하기 어렵고 귀가 따갑고 복도, 학교 전체가 울리게 틀었다. 듣기 풀면서 제발 소리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단 문제를 펼치고 듣기 1번이 시작 되기 까지 25~28(일치 불일치)를 풀었고 뒷장 넘어가기 전에 클리어 하고 바로 41~45(장문 독해)에 들어갔다. 2023 수능 영어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듣기 9번!! 사실 나는 평가원이 듣기에서 노림수를 둘 것을 예측하고 바로 풀었다. 듣기가 끝나고 2분을 더 할애하여 장문독해까지 독해 9문제를 풀었다.

그다음 부터는 18~24번, 29~40까지를 나름의 순서에 따라 풀었다. (자신이 쉽다고 느끼고 정답률이 높은 유형부터 풀이해라, 가장 자신 없는 유형은 맨 뒤로 미뤄야한다) 결과적으로 마킹 다 하고 15분 정도가 남았고 개인적으로 느낀 영어 난이도는 쉬운 감이 없지 않아있고 6,9월 보다 평이 했다? 라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영어를 마무리하고 오엠알 검토를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나중에 오르비, 뉴스를 통해 영어가 꽤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2023 영어 1등급 비율 : 7.83

## 2. 동기부여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수능 영어 공부법은 만약 선생님들께서 보신다면 뒷목을 잡으실 수도 있는 공부법이다. 그러나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정시러,최저러 라면 또는 예체능이라 반드시 영어 1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사유가 있지만 시간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따라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정시에서 영어 2,3 뜨면 반영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감점이 심할 수 있다. 정시는 한 문제 싸움이다.

나는 이 공부법(루틴)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만들어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는 수능과 관련된 영어 학원, 과외를 받은 적이 없다. 1달만에 1등급을 턱걸이라도 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테니 그대로 따라해라. (이건 과외가 아니기에 모든 유형을 하나씩 어떻게 푸는 것인지 분석하지 않았다.) 이 비법서는 1달동안 풀어야하는 문제집, 단어장, 등을 소개한 비법서이다.